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은 욥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모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소유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욥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친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이내 욥이 당한 고난이 욥의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관점에서 이 고난은 인과응보와 같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반응에 대하여 욥이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장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 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원인을 쉽게 인과응보 즉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그런 관점으로 고난 당하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에도 쉽게 인과응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9:27)."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생명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으며 영원한 형벌인 불 못에 던져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 못에 던져지더라(계20:15)."

이와 같이 성경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고난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인과응보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 오는 이유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고난을 인과응보의 관점에서만 이해를 하다가 낙심할 뻔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거의 넘어질 뻔 하였고 자신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 시편의 기자도 역시 고난에 대해 인과응보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악인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인과응보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악인이 패배하고 몰락하며 그 악한 행실에 걸맞은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오히려 강건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뿐 아니라 악인들의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평안히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응보의 고난이나 형벌이 없기 때문에 악인들은 더욱 교만하고 포악하며 더욱 많은 소득을 벌어들여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악인들은 능욕하는 말로 악을 쏟아내고 거만한 말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악인들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그리고 계속해서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결하게 살아온 것을 후회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와 같은 시각은 사실 우리들도 악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시각이요 또한 고난을 대하는 기본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에 대한 이러한 인과응보적인 시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갖는 오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벌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때에 일어나야 한다고 정해놓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들의 종말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한 순간에 파멸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악인들이 너무나 예상치 못하게 황폐하게 되어서 진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었고 악인들은 그 심판 앞에 진멸하였습니다. 분명 인과응보이지만 그 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시편 기자는 자신의 우매 무지함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자기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주의 곁에 있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드리는 말씀은 분명 악인과 죄에 대해서는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에 따른 형벌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인생들이 받는 고난이 모두 우리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인과응보의 결과라고 판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인이 죄를 범하여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사53:4)."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지만 사람들은 그가 범죄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늘 욥의 고난을 보는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고난을 대하며 자신들의 지식을 마음껏 쏟아냅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 고난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분별은 없고 오직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의인이면서도 고난을 당하는 욥을 비난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의 형통을 보며 나도 마음 놓고 죄를 지어야지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지금 당하

는 고난이 죄로 인한 벌이라는 생각도 쉽게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내일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